

# “朝鮮算 算字”의 報告

李 相 國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

朝鮮算  
算字  
一  
二  
三  
四  
五  
六  
七  
八  
九  
十

## 1. ‘朝鮮算’의 發見

會計帳簿의 記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實務界-특히 近代의 銀行會計制度의 採擇과 關聯된 銀行 實務界-에서 傳統의 漢文 數字에 代身하여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하기 始作한 時期를 究明할 目的으로 그 資料를 蒐集中, 1983年 봄 어느 날 偶然히 古書店에서 「六藝之末」이라는 낡은 表紙의 冊子를 入手하였다. 勿論「六藝之末」은 古代 中國의 六箇 教科目인 禮, 樂, 射, 御, 書 數 가운데의 ‘數’로, 오늘날의 數學을 指稱함은 모두 잘 알려진 바이다. 冊子의 年代가 白牛年 즉(辛丑年) 西紀 1901年(光武 5年)이므로, 當時의 아라비아 數字 使用程度를 살필 目的으로

첫 장을 여는 瞬間,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「朝鮮算」이란 10個 數字를 發見하였다.

## 2. ‘六藝之末’의 數字 表記內容

이 冊子는 安止參 講述로 되어 있다. 처음에는 純粹한 中國 傳來의 六藝之末編으로서, 처음부터 끝까지 純漢文字(數字包含)로 서술되고 있다. 또한編은 1895年 學部編輯局에서 刊行한 것으로 알려진 ‘簡易四則’의 問題集을 써 넣고 있는 바 韓紙에 墨筆로 쓰고 있다.

‘六藝之末’編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純漢文字로 서술하고 있고, 漢文 數字外에도 ‘淸國’ (標算 또는 胡算)을 두 군데에서 7字를 使用하고 있을 뿐, 아라비아數字의 使用은 없다. 뿐만 아니라 例의 ‘朝鮮算’도 ‘六藝之末’編에서는 볼 수가 없다.

‘簡易四則問題集’編에서도 주로 漢文數字를 使用하고 國文(한글)과 漢文을 混用하고 있다. 이編에서는 ‘淸國算’은 하나

도 使用하고 있지 않으나, 아라비아 數字  
 는 두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한 곳은 問題  
 의 答에, 또 다른 한 곳은 마지막에 倭算  
 이라 하여 아라비아 數字를 쓰고 다음에 漢  
 文 數字를 쓰고 있다. 또 그옆에 '清算  
 이라 하여 標算(胡算)을 表記하고 있다.  
 倭算과 清算은 各各 한글로 日本音과 清音  
 을 적어 넣고 있으며, 아울러 洋音을 表  
 示하고 있다. 그러나 여기에서도 '朝鮮算'  
 에 대한 記錄은 찾아 볼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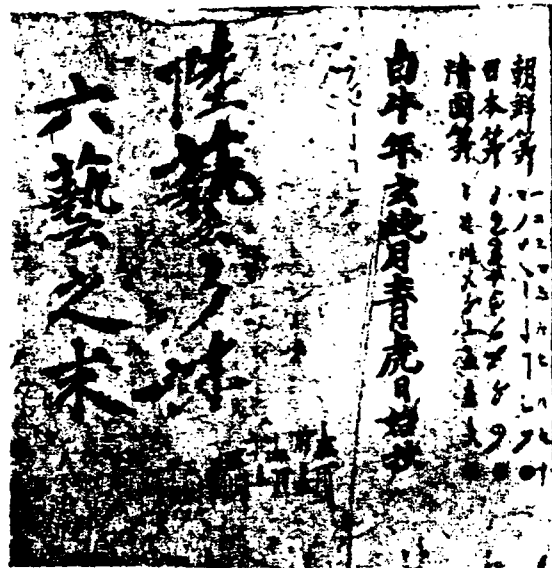


【表 紙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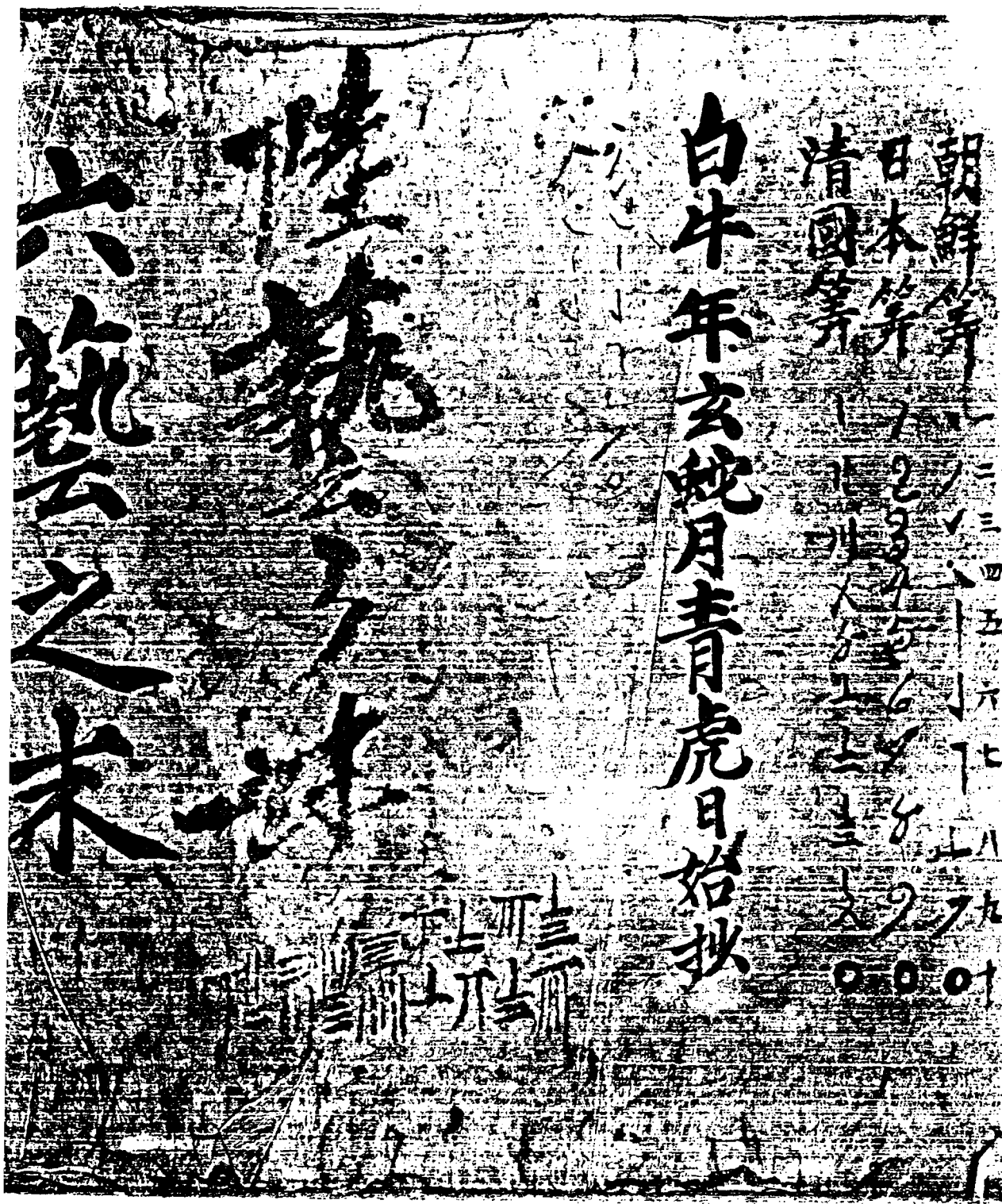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한 一年동안 一部 學界 · 言論  
 界 및 比較的 傳統있는 實業界의 人士들을  
 만나는 한편, 地方에 散在된 展示物 등을  
 探訪하는 등으로 考證을 求하려고 하였으  
 나, 結果는 한결같이 '처음본다', '記錄이  
 없다' 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- 이로 말미  
 아 얻은 부산물은 있었다.

우선 「朝鮮算10字」의 發見을 報告하  
 는 것이다.

이에 관하여 質問하실 분이 있으시면 알  
 려주시기 바랍니다.



【朝鮮算 10字】



六藝之末  
禮樂射  
御書數

白牛年  
亥月  
青虎日  
始抄

朝鮮  
日本  
清國  
一  
二  
三  
四  
五  
六  
七  
八  
九  
〇  
〇  
〇  
〇